

Q1

산불조사·감식을 위해 산림청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?

A

산림청에서는 산불조사·감식에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최초 발화지를 찾고,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산불조사감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산불전문조사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,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공무원 200여 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였습니다.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산불 조사와 감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발생원인 및 확산형태 분석 등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산불조사·감식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.

Q2

산불 원인 및 발화지를 조사·감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

산불의 원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원인이 분명해야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생활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효과가 있는 예방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개개인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조사·감식을 통해 산불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산불은 나무, 돌, 가지, 풀, 심지어 산에 버려진 쓰레기에도 흔적을 남깁니다. 이 흔적을 분석하여 산불이 최초로 발생한 곳(최초 발화지)을 찾고, 그 곳에서 원인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대형산불 혹은 민감한 문제가 있는 산불에 대해서 감식 요청을 받아 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산불원인조사감식

Q3 | 산불의 최초 발화지는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?

A 모든 산불은 돌, 나무, 먹다 버린 강통에까지도 흔적, 즉 확산 경로를 남기게 됩니다. 크게는 수십 ha에 이르는 잣더미 속을 헤매고 때로는 등산로도 없는 산중까지 들어가 타다 남은 솔방울이나 돌, 풀 등의 흔적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.

이러한 흔적을 산불감식지표라고 하며, 조사요원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산불의 확산 경로를 역추적 합니다. 이렇게 흔적과 단서를 찾아가다 보면 산불이 최초로 발생했던 지점, 즉 최초 발화지와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와 최초로 출동한 산불진화대원들의 목격담, 주변 CCTV정보 등을 참고합니다.